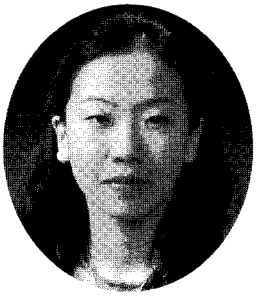

이 종 은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 박사과정

푸르른 녹음이 막바지인 8월말 국제인간공학회가 "Ergonomics in the Digital Age"란 주제로 한국에서 개최되었다.

International Ergonomics Association(IEA)는 이번으로 15회를 맞이하는 학술대회 행사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나로서는 다소 생소한 감이 없진 않았지만 우연한 기회를 통해 석사 학위논문의 초록(Work Related Musculoskeletal Risk Level with Nursing Tasks in Neurosurgical ICU by OWAS)을 제출하였고, 학회에서 poster presentation을 하게 되는 행운을 얻었다. 아마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이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직업병이고 그만큼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첫날 학회에 참석하였다. 한국에서 개최되었지만 생각 외로 외국인 참가자들이 더 많아서 국제학회임을 몸소 실감할 수 있었다.

IEA 회장의 인사말로 opening ceremony가 시작되었다. 우리 나라 가요를 국악화하여 은은하게 음악이 연주되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화백이 화선지에 매화를 그리기 시작하였다. 붉은 색과 검정색.. 단 2가지 색으로 화선지의 여백의 미를 살려 정적이고 고요한 한국의 미가 표현되고, 외국사람들 역시 모두 조용히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본격적인 주제발표는 오후부터 시작되었다. 인간공학 분야가 광범위한 만큼 여러 주제별로 나뉘어서 그 주제에 속하는 수많은 논문들이 지정된 방에서 발표되었다.

일부 제목은 아래와 같다.

- Agriculture
- Complex systems
- Ergonomics Society of Korea/Japan Ergonomics Society joint session
- Cognitive ergonomics
- Human reliability
- Industrially developing countries
- Office ergonomics
- Affective design

- Current trends in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More variation the job : Will it improve musculoskeletal health?
- Auditory ergonomic
- The development of a handbook for the human centered Design process
-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reventing work-related MSDs
- Management of industrial ergonomics
- human factors 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 Human centered design based on ergonomics
- Hospital ergonomics
- Musculoskeletal disease...

하루에 약 200편 정도가 발표되었는데 흥미롭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많이 접해 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점이 매우 아쉬웠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주제가 열리는 방은 항상 사람이 붐비고 인기가 좋았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였기 때문일 것이다. 각 나라마다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현황과 대책, 예방프로그램,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한 자세분석과 위험요인 측정방법 등이 발표되었다. 5일간의 학회 일정이 우리 나라 학회에 비해서는 긴 기간이었지만 방대한 양의 연구과제 발표에 비하면 상당히 짧은 기간이라고 느껴졌다. 외국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체구도 크고 동작도 둔하여 동양인에 비해 느릴 것으로 생각되나 생각에 있어서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면을 엿볼 수 있었고, 조금이나마 그들의 자유분방함도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고, 외국인들 역시 한국인의 좋은 모습만 가슴에 담아 돌아갔으면 하는 작은 바램도 했었다.

2003년 IEA는 2006년 네덜란드 Masstricht에서의 만남을 기약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